

목포 가을페스티벌 방문객 94% “재방문 할것”



8주간 진행된 목포 가을 페스티벌 행사. 경동성당 마당에서 진행된 재즈 공연(왼쪽)과 목포의 새로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된 낭만비어 페스티벌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개최 시기·만족도 “굿~”

재즈 공연·낭만비어 인기

가족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

주차장·화장실 부족 개선해야

목포 가을 페스티벌에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로는 40~50대의 참여도가 높았고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축제 시기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목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불만사항으로 제기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가을 페스티벌에 가족과 방문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고 친구·연인과 함께한 비율도 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목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어린이들을 겨냥한 체험프로그램’ 보강이 시급하고 친구·연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10명 중 4.3명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주차장과 위생시설(화장실) 부족’을 꼽았다.

또 먹거리 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도 28%에 달해 추후 푸드 트럭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목포시가 지난 9~10월 8주간에 걸쳐 진행된 ‘목포 가을 페스티벌’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주말에 총 22일 동안 15개 행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268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축제를 인지한 경로는

공연 홍보물이 34%로 가장 높았고, 주위 사람(29%)과 SNS 및 인터넷(24%)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방문객의 94%가 ‘재방문’ 의사를 피력한 것은 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방문객이 10%에 달한 것도 유의미한 수치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가을 페스티벌에서 ‘재즈 공연’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어우러지면서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즈 공연 확대와 함께 서울 재즈페스티벌이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처럼 ‘재즈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낭만 비어 페스티벌과 건맥 1897’ 행사는 목포에서 처음 시도된 색다른 형태의

페스티벌로 주최 측도 예기치 못한 2030 세대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목포의 새로운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목포 9미와 함께 하는 막걸리 축제(가정)’, ‘평화광장 빛 축제’,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EDM 페스티벌’, ‘청춘연가·해설이 있는 근대가요 산책 정가공연’ 등도 향후 목포 가을 페스티벌의 발전 요소로 꼽혔다.

배석인 목포시 기획문화국장은 “관객들에게 가을 페스티벌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면서 목포시 입장에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택시 서비스 대대적 개선 나섰다

‘관광 목포’ 위해 설문 조사
이달중 종합대책 수립키로

“해도 해도 안 된다. 너무나 어렵다.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등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도 백악이 무효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열린 11월 중 실과소장 시정현안 회의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후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택시 친절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하긴 어렵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호소였지만 사실상 질책이었다. 이에 주한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비상이 걸렸다.

택시 불친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처럼 김 시장이 전면에서 나서 강령 대응을 주문한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에 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택시와 식당의 불친절이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는 ‘관광 목포’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산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목포시는 이달 중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통행정과는 택시 불친절 행위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사자가 폭언, 욕설, 성희롱 발언 등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게 행정처분의 골자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개통이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8일까지 시민 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 1000명과 택시 종사자 1755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과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택시 이용 시 불편했던 점, 개선 요구사항 등 10개 항목이며 운수종사자에게는 웃음택시 운영 및 발전방향, 택시 이미지 개선방안 등을 물었다.

이 조사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종사자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는 게 목포시 계획이다.

또 시는 유명 강사보다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직접 강사로 활용해 실전경험 사례를 위주로 ‘피부에 와 닿는 친절교육’을 14일부터 21일까지 9개 회사 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 방법등을 활용해 목포 대표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를 홍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목포 택시만의 차별성과 통일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관내 1518대(법인 622대, 개인 896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해 방법등 앞면에는 브랜드 콜롬을, 뒷면에는 목포브랜드를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친절한 목포택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웃음을 전파하는 ‘웃음택시’ 45대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섬 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 이달말 착공

북항~장좌도~율도 3.7km
72억 투입 2021년말 완공
섬 주민 수도물 공급

목포시 지역 섬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사업이 첫 삽을 뜬다.

장좌도와 율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꿈에 그리던 수도물을 오는 2021년 말부터 마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상수도 사업단에 따르면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해저

관로 매설 공사’가 이달 말 착공된다.

이번 해저관로 매설 사업은 북항에서 장좌도를 거쳐 율도에 이르는 총연장 3.7km에 150mm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해저가 1.9km고, 육상은 1.8km다. 총 사업비 72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지난해 말에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이에 지난 9월과 10월 전남도 계약심사와 감사실 일상감사를 마치고 입찰을 거쳐 이달 낙찰자가 선정됐다. 이번 공사는 1차분으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진주 목포시 급수팀장은 “해양관광

목포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유달동 도서지역 상수도 통수는 그동안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 온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역사적인 일이며 또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민선 7기 3대 브랜드인 ‘슬로시티 목포’로서 위상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 협력이 체결된 공사로 벤토나이트 현탁액 재사용과 센서보호 지지기구를 이용한 비계착해저관로 부설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새마을회-한국병원
우호 증진·의료 지원 협약

목포시새마을회(회장 한웅)와 목포 한국병원(원장 고광일)이 지난 8일 한국병원 문화센터에서 우호증진과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의 의료지원과 재난 발생 때 응급 구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웅 목포시새마을회 회장은 “보다 안전한 목포 건설을 위해 한국병원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에 따라 응급난구호 역할에도 힘써 낭만항구 맛의 도시 목포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소방서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홍보

목포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을 슬로건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목포시·신안군 의용소방대는 11월 한 달간 매주 주말에 터미널과 다중이용시설, 주요 교차로, 관광지 등지에서 소방통로 확보, 주택용소방시설 갖추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 행위 금지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전남지역 화재 발생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50%가 11월~2월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4731건으로 전체(1만1702건)의 40%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42명으로 전체 사망자 84명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날인 지난 9일 목포역 등 3개소에서 소방대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장경숙 목포소방서장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민이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X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 TEL : (062) 953 - 2995
▶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